

# ⚠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한 석재에 맞음 ⚠

## 🚧 재해개요

2024. 03. 00.(월) 8:49경 대구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, 재해자가 지상 2층 발코니에서 이동 중 비계 상단의 석공사 작업 장소로부터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(H≒ 16.2m)한 석재에 맞음



## 📝 발생원인

### ▶ 자재의 적재 상태 불량

- (고정불량)비계 내측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석재는 비계 기둥에 기대어 있었으며, 작업자의 팔꿈치와 석재가 부딪히며 석재가 낙하함.

### ▶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

- (출입금지구역) 2층 발코니에는 상부 석공사 진행 중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·하 동시작업을 진행함.
- (낙하물방지망) 건물과 비계 사이 개구부와 2층 발코니에는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망, 방호선반등이 설치되지 않음.

## 👷 예방대책

### 1 비계 위에서 석재 등 자재 적재 시 고정 및 지지상태 확인 철저

- 비계 작업발판에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 끈 등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안정적인 구조로 거치될 수 있도록 지지상태 확인 철저.

### 2 비계 위에서 석공사 등 작업 시 낙하물 방호조치 철저

-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, 다른 작업자가 이동통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.
- 비계에서 석재의 운반 시 전용 자재 인양구를 설치하여 하부 출입금지조치 후 인양구를 통해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.

※ 본 D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